

## 불쌍한 대학 강사들



박석무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라는 옛날의 속담이 있다.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생과 교사와 강사는 물론 교수와 직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관계자들이 집합되어 있는 교육계야말로 언제나 말이 많고 시끄러우며 조용한 날이 없게 되어 있다. 어느 날이건 신문과 방송에 교육계에 대한 말썽들이 빠지는 날이 없고, 자고 나면 시끄러운 곳이 바로 교육계인 것이다.

고교 평준화 문제도 언제나 시비거리이고, 비리 사학의 문제도 빠지는 날이 없으며, 교사 수급 문제며, 대학 입시 등 교육계는 언제나 사회적 관심사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교육 개혁이 근래의 큰 화두가 되어 끊임없이 토론이 벌어지고, 정답을 얻지 못해 언제나 조용하지 못한 분야가 바로 교육계의 일이다. 그런데 요즘 교육계의 화두로 가장 크게 부각되어 어떤 결론을 얻어내야 할 분야는 바로 대학의 강사들 문제다. 따가운 초추(初秋)의 양광이 대지를 내려 쪼이며 오곡을 무르익게 하고, 산야에 단풍이 들어가며 아름다운 한국의 가을이 펼쳐지고 있어 모두가 아름다운 계절에 감탄하면서 삶을 찬미하고 있건만, 이 가을에 슬픔을 자아내게 하고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분야가 대학의 슬픈 강사들이다.

자연 과학 분야는 그래도 조금은 길이 띄어 있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인문 사회 과학 분야를 전공하여 오랫동안 학문의 연찬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겨우 얻은 시간 강사의 자리이지만, 생계도 해결되지 않고 지위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처지여서 남들이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계절일수록 더욱 서글퍼지고 구슬퍼지는 직업이 바로 대학의 강사라는 직업이다. 10년, 15년 동안 독일, 영국, 미국과 국내에서 연찬을 거듭하여 얻어낸 박사 학위지만, 대학의 시간 강사 자리도 따내기 어려운 그들,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대학의 시간 강사들은 시간당 2만 원 정도의 강사비를 받는다. 9시간 정도의 주당 강의에도 한 달 수입은 고작해야 70여 만 원, 교통비를 제하고 잡비를 제하면 무엇이 남겠는가? 주당 9시간은 또 쉽게 얻은 강의인가? 만약 두 세 시간의 강의를 맡는다면 한 달 수입이라야 10여 만 원에 지나지 않으니, 처자가 있는 30대말에서 40대 초반의 그들의 생활 정도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에는 이러한 대학의 강사들이 무려 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다. 세칭 '보따리 장사'라고 일컫는 그들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일이다. 어떻게 해야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서 그들이 마음놓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해 주는 일을 맡은 이후 지나거나 근심과 걱정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일이었다. 그래서 대학의 교수들에게만 지급해 오던 연구비를 강사들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보기도 하였고, 시장성이 약한 학문을 전공하여 전임 교수가 되기 어려운 분야의 강의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보호 학문 분야 강의 지원을 실현해 보기도 하였고, 박사 후 연수 과정의 연구비 확대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펴 보기도 했지만, 한계는 한계대로 남아 있고, 금전의 액수로나 지원자의 숫자로 보면 그야말로 '조족지혈(烏足之血)'이요, '한강 투석'이 아닐 수 없었다.

고급 두뇌요, 학문 후속 세대인 대학의 시간 강사 문제는 이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문제요,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배우고 연구한 정도로 사회적·경제적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세상이라면, 누가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 탐구를 계속하겠는가? 학문 연구자와 진리 탐구자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아찔해지고 이 가을이 더욱 서글퍼만 진다.

우리 학술진흥재단에서는 요즘, 적은 액수지만 별도로 항목을 정하여 대학 강사들만을 위한 연구 지원 항목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대두되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려고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의 학술 연구 지원비가 증액되거나 확대되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다고 오늘의 우리 경제 사정으로 보아 당국에서 학술 연구 조성비를 크게 확대시켜 줄 희망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은 줄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대학 강의는 시간 강사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이제 대학 당국도 시간 강사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끼서는 안 될 것이다. 강사료의 증액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그들을 전임 교수로 영입하는 문제도 고려해 보면서 뭔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지혜를 짜고 열성을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시간 강사와 대학 교수는 하늘과 땅 사이라는 말이 있다. 일단 전임으로 채용된 교수와 시간 강사와의 차이는 모든 면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다.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일정한 봉급에 사회적 대우와 지위가 바뀌면서 딴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은 시간 강사들의 문제는 그렇게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안 된다.

이제 정부와 대학 당국은 말할 것 없이 모든 교수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시간 강사들의 서글픔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하여 시간 강사들에게도 한국의 가을 하늘이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기대해 본다. 

#### 박석무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대동고등학교 교사, 다산학연구가, 전남대·명지대·국민대 강사 등을 거쳐 13·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호남대·동국대 겸임 교수,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다산학연구원 이사,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사, 민족문화추진회 이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퇴계학연구원 학술위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다산 기행」, 「우리 교육을 살리자」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 「다산의 법률관」 등이 있다. 역서로는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 「다산 산문선」,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등이 있다.